

# 도 축산업 경쟁력 강화 현대화 추진

##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위한 방역대책 반영 선정 우선순위·지원대상 제외 범위 확대

전북도는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8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2018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AI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대책 등이 반영되어 개정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사업 대상자

우선 1순위에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농장을 특한 자,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자를 추가했다.

지원제외 대상에는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이내(종계·종오리는 농가 간 10km 이내), 주요 축산시설 3km 내에 신규 또는 이전하여 축사를 건축하려는 자와 과거 3년간 가축전염

병예방법 위반(가축소유자 방역준수 사항 미이행, 죽은 가축 미신고, 소독 시설 미설치 등)으로 행정처분 받은 농가다.

이는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축산정책에 공간적 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축사 시설 개편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또한, 지원형태가 가금농가를 제외한 다른 축종농가에 대해서는 용자 80%, 자부담 20%이고 가금농가의 경우는 중소규모 농가는 보조 30%, 용자 50%, 자부담 20%, 대규모 농가는 용자 80%, 자부담 20%이다.

2018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월14일까지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사업을 신청, 추후 농식품부의 예산 배정액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된 대상자 중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2018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생산성 향상, 친환경 축산 육성 등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AI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약수하는 전 대변인과 신임 대변인

6.13 지방선거 총남지사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사진 왼쪽)이 지난 2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고별사를 마치고 김의겸 신임 청와대 대변인(가운데)과 악수하고 있다.

## 설명절 특별 공직감찰 활동 돌입

5일~18일 권역별 5개반  
23명 인력 투입 '무관용'

전북도는 설 명절과 지방선거 분위기에 관습해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 2월 5일부터 18일까지 권역별로 5개반 23명을 투입하여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14개 시군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찰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2일 도에 따르면 이번 공직감찰은 설 명절 귀성객 및 도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거나 명절을 빙자한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혐의 등 음성적 비리, 공무원들의 무단이석과 근무태만 행위, 화제 등 재해 재난 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감찰을 통해 적발된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일벌백계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러한 공공 부패행위 근절 일환으로 지난 2월 1일부터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익명제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익명제보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IP 추적이 불가하여 내부고발 등 공익신고 문화가 정착되면 공직 사회의 청렴도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봤다.

도 박용준 감사관은 "이번 공직감찰은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면서 지난달 17일 개정,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무원들이 지방선거를 녀 달 앞두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공직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설 우편물 걱정마세요” 비상근무

20일까지 특별처리기간 운영  
1300여명 보조인력 투입 등  
인력·가용 장비 총 동원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철)은 2월 5일부터 2월 20일까지 16일간을 '설 우편물 특별처리기간'으로 정하고 우편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기간 중 우체국소평과 설 선물 택배 등 소포우편물의 일일 최대 처리 물량은 평소보다 2배이상 많은 14만 여건에 달하고 특별소통 기간 중 총 100만 여건의 택배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북지방우정청은 우편물 배달에 차

질이 없도록 설 소통기간에 특별처리 대책반을 설치, 3천여 직원 및 140명의 보조 인력과 하루 평균 1,000여대의 차량 및 자동이륜차 등 모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할 계획이다.

전북지방우정청 송승룡 우편물류과장은 "설을 앞두고 우편물이 폭주하기 때문에 부패하기 쉬운 어패류, 육류 등의 상품은 반드시 아이스팩을 넣고, 파손되기 쉬운 물건은 스티로폼 등 완충재를 충분히 넣어 포장을 견고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받는 사람의 주소와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귀성과 연휴로 집과 사무실 등을 비우는 경우가 많으므로 받는 사람의 연락처를 기재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 유망기업 글로벌리더 육성 지원 사격

### 도, 강소기업 신규 모집 이달 23일까지 신청접수 선정시 맞춤형 지원 혜택

전북도는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2018년 글로벌 강소기업'을 신규 모집한다.

지난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해 지역의 유망기업

을 글로벌 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을 통해 최근 5년간 강소기업 매출액이 연평균 4.42%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공모사업 과제 선정을 통해 총 61.5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신청자격은 2017년도 직접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등 혁신형 기업은 직접수출액 100만불 이상인 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글로벌

역량을 진단하는 현장평가, 마지막으로 기업의 성장가능성 및 역량 및 고용에 대한 발표평가의 3단계를 거쳐 강소기업에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은 4년 지정기간 동안 중앙공모 선정을 통해 R&D(국비 2년간 최대 6억원) 및 해외마케팅(국비 4년간 최대 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도비 추가지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양한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기업당 3천만원 내외)을 제공받게 된다.

신청서류는 2월 1일부터 2월 23일

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전산등록 후 신청서는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도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지역 제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육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역의 유망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전북경제에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설명회

전주시 덕진구 선관위  
12일 오후 2시 열어

전주시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12일 오후 2시 전주시 평생학습관 공연장에서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전라북도도의회의원선거(전주시6·7·8·9

선거구)와 전주시의회의원선거(전주시 아·자·차·카·타·파선거구)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앞두고 선거에 참여할 입후보 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내용은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선거비용)의 회계보고 등 예비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사무 전반이다.

/채규남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주희(1928. 6. 28.생 2017. 9. 22. 사망)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허윤범 판사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7-단1344 상속한정승인 판사 허윤범
- ▶피상속인: 망 김주희(1928. 6. 28.생 2017. 9. 22. 사망)
- ▶취후주소: 전북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812 105동 102호(대영아파트)
- ▶공고인: 김권희
- ▶상속한정승인수리일: 2017. 12. 15.
- ▶공고기간: 2018. 2. 5. ~ 2018. 4. 4.
- ▶주소: (청구인 김권희의 주소) 전북 임실군 신덕면 불계로 174 010-4651-9880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